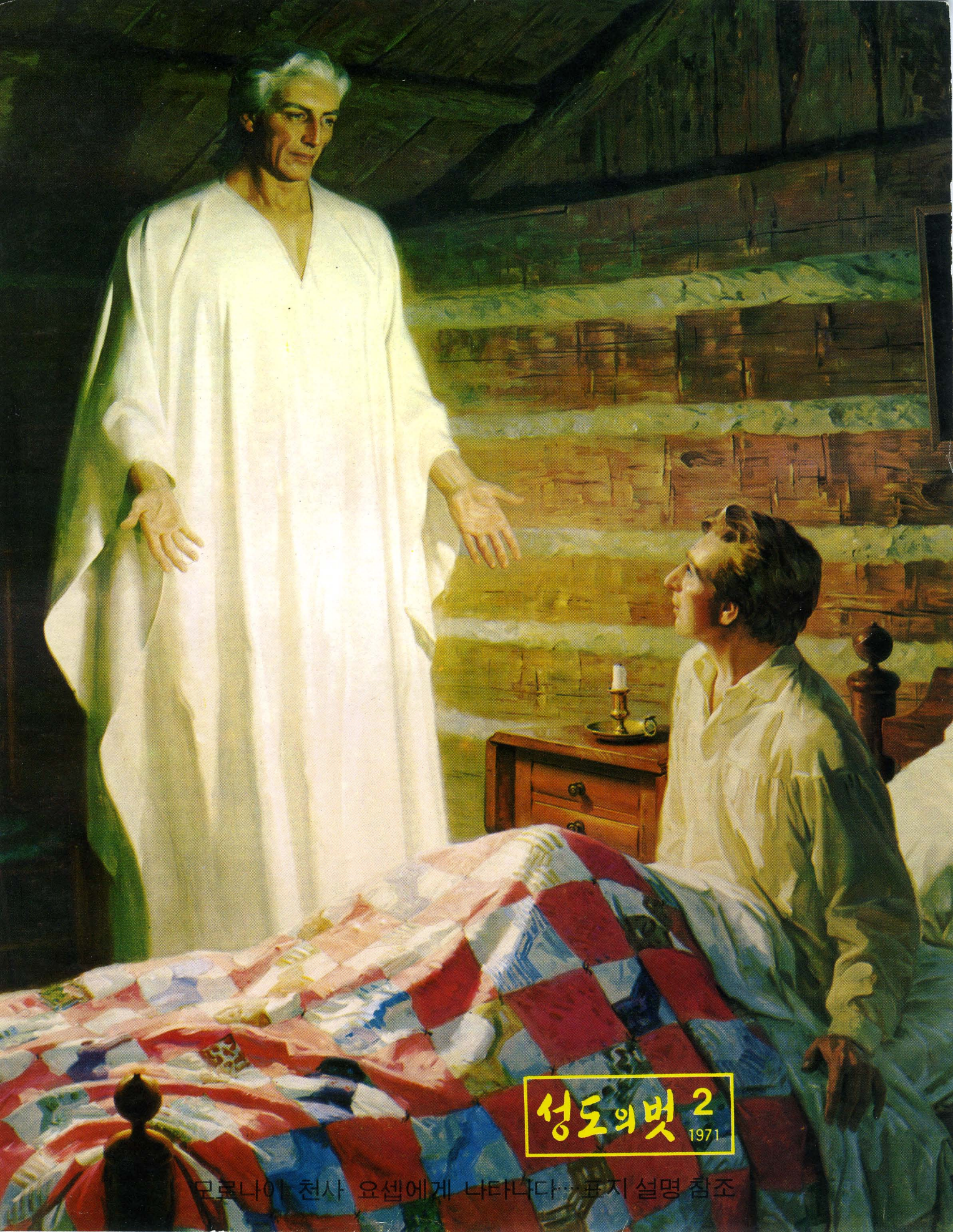


성도의벗 2
1971

모로나이 천사 요셉에게 나타나다 : 표지 설명 참조

영감의 메시지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원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갈파하신 사도 베드로의 충고를 따라야 하겠읍니다. (벧전 3 : 15)

목청을 높여 신회의 참다운 본성에 관하여 간증하십시요.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외치십시요. 구원의 계획에 들어있는 아름답고 영광에 가득찬 진리를 전하십시요. 저는 농촌 출신 선교사로 카나다에서 봉직한 바 있는 사람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신장은 작았으나 간증은 큰 사람이었읍니다. 그는 동반자와 함께 카나다 오샤와에 사는 앨마 폴라드의 집을 방문했읍니다. 매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이집 저집 찾아다니는 모습을 측은하게 여긴 폴라드 씨는 선교사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였읍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메시지를 전했읍니다. 그는 좀처럼 말씀의 영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읍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나자 이제 그만 마치고 돌아가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읍니다. 장로들을 앞 현관까지 배웅하여 주며 마지막으로 한 말은 "여러분은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믿고 있는 것을 제대로 어야기하지 못하고 있오."라는 것이었읍니다.

문은 닫혔읍니다. 두 장로는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읍니다. 그때 시골 청년이 동반자에게 말했읍니다. "우린 폴라드 씨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오. 그는 우리가 요셉 스미스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오? 우리 가서 간증을 해야겠오." 처음에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선교사는 망설였으나 마침내는 동반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읍니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그 문에 가까워 질수록 두려움은 더해 갔읍니다. 문을 두드리고, 폴라드 씨와 마주하여 실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낸 다음 용기를 얻어 영이 지시하는 대로의 간증을 했읍니다. "폴라드 씨는 저희가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은 예언자로 몰몬경을 번역했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보았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읍니다."

폴라드 씨는, 이제는 폴라드 형제가 되었지만, 얼마후 신권회에 참석하여 이런 말을 했읍니다. "'저는 그날 밤을 한잠도 못잤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읍니다. 저는 압니다.' 하는 소리가 귀를 울렸읍니다. 다음 날 저는 선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읍니다. 그들의 간증으로 한층 강한 힘을 가진 메시지는 저의 생애와 가족 모두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읍니다." 간증으로 진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1년 2월 1일
통권 제67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 50원
1년 구독료(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설명 : 1923년 9월 21일은 복음의 회복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날이다. 요셉 스미스 이세가 하나님과 아들을 보고 대화한지 삼년이 흘렀던 것이다. 18세가 된 요셉은 임명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싶다는 열의로 가득찼다. "저녁 잠을 자려고 침실에 들어간 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사함받으며…… 지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였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29)

그날 밤에 3번, 다음 날에 2번 부활한 미대륙의 선지자-역사가-군인인 모로나이는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고대 기록에 관하여 지시해 주었다. 영어로 나타날 준비 과정으로 4년을 줄 것이며 이 책은 몰몬경으로 알려질 것임을 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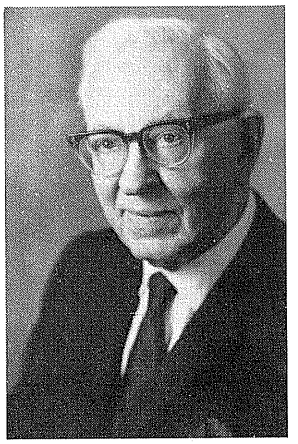
몰몬경의 출현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은 수년간에 걸친 화가의 노력으로 역력히 나타나게 되었다. 이번 호의 표지는 톰 로벨의 그림으로 여러 방문자 센터에서 널리 사용될 것이다.

제 7 권 제 2 호 **순 서** 1971년 2월호

권두언 : 결혼의 성스러움 죠셉 필딩 스미스 ……1
모두가 간증했다 멜버트 엘 스테플리……3
원하시는 곳에 가오리다 알버트 엘 죠벨 이세……5
십년후—선교사에게 주고 싶은 말 베티 멕밀란 ……7
몰몬과의 싸움 로버트 엘 캐논……8
두 선교사가 겪은 페루의 지진 ……9
기억의 책—망각의 책? 로렌스 더블류 랜드 ……10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희생 오웬 캐논 벤연……12
어린이 페이지 : 도토리와 호박 불란서 우화 ……15
미소 짓기 베르나디네 베티에 ……16
관리감독단 페이지 : 삶의 도전과 맞서다 죤 에이치 반덴버그 ……19
단편소설 : 사랑의 모험 캐서린 케이 에드워드 ……20
교회의 대관장 에이치 파커 불라운트……24
감사하는 습관 보니 제이 바벨 ……28
선교부장단 메시지 : 봉사에의 부름 윌리암 오 휘티커……30
내외 소식……31
진리의 말씀 : 결혼 생활의 예절……표 4

결혼의 성스러움

대관장 **죠셉 필딩 스미스**



● 위대한 사람중에서도 결혼을 단지 한 남자와 여자가 죽어 헤어질 때까지 함께 살게 해주는 사회적인 계약 또는 동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집에서의 결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성스럽고 엄숙하며 나아가서는 인간의 영원한 기쁨에 필요한 의식은 없읍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좌우되는 영원한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시작과 함께 결혼의 법을 복음의 율법의 하나로 주셨읍니다. 복음의 계획에 입각하여 본다면 결혼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모든 인간이 복음에 철저히 따르며 주님의 영이 마련하여 주는 사랑을 귀히 여긴다면 모든 결혼은 영원하게 될 것이며 이혼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혼은 복음 계획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이란 인간의 마음이 강퍅하여지고 불신앙에 빠졌던 관계로 생겨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물었을 때에도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을 허락하였느냐는 물음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 19 : 3—8 참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결혼은 일단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큰 축복과 책임을 가져다 주는 원리입니다. 인내와 사랑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오는 위대한 사랑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영의 단계에 이르려면 결혼의 성약에 충실할 때 쉽게 달성할 수 있읍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성약을 통하여 성스러운 분이 정한 완전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읍니다.

합당하게 받는 경우 이 성약은 인간에게 최대의 행복을 안겨주는 방편이 됩니다. 생과 앞으로 닥칠 생에 있어서의 영광, 완전한 사랑속의 영예, 통치, 능력도 이로부터 흐르는 축복입니다. 이같은 영원한 영광의 축복은 이 결혼의 성약과 기타 복음의 성약에 기꺼이 따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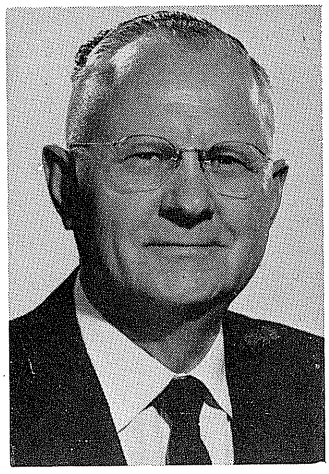
주님은 인간의 행복에 그처럼 중요한 성스런 원리에 관하여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읍니다. 교회에는 성약하는 사람과는 죽어도 끝나지 않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의식이 있읍니다. 말일성도가 이해하는 바의 결혼은 영원토록 성임된 성약입니다. 영원한 승영에의 기초이며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왕국에서의 영원한 자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일성도의 결혼은 그것이 합당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아버지께서 결혼의 성약을 허락해 주셨으며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신전을 찾은 쌍이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란 일종의 계약으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라는 범우주적인 개념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겠다고 장담한 진리의 적이 만들어 낸 법입니다. 이 지상에서 첫번째로 수행된 결혼은 죽음이 이 땅에 오기 전으로 죽음과 이별이라는 생각은 이에 들어가 있지 않았읍니다.

모든 말일성도 청소년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원한 결혼의 진실하고 성스러운 방법을 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일성도 부모들은 자녀에게 결혼 성약의 성스러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약중 가장 훌륭한 것의 하나인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존중하는 방법 이외에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명에 충실할 때 그들의 영광과 승영에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만물은 저들의 것이다.…저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또 저들은 모든 것을 이기리라." (교성 76 : 59, 60) ○



모두가 간증했다

델버트 엘 스태플리
십이사도 정원회

● 교회 젊은이에게서 이런 질문을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언자, 죽은 다음의 삶이 있고, 인간은 낮은 상태의 생명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세상의 악과 어두움의 권세와 사악이 젊은이의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교회 지도자의 깊은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젊은이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부패한 남녀의 부단한 노력을 아낄 수도 있으며 젊은이 중에는 제이 루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이 "의문 제조자"에 관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조심스럽게 "지옥으로 인도"(니이28 : 21)되어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의혹 제조자"에 포함 되는 사람으로는 :

회의론자—인정되었거나 성스럽게 계시된 진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신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불가지론자—종교적인 확신은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정당한 것으로 믿게하는 증거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믿는 사람.

불신론자—여하한 형태의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의혹자—이미 확정된 신념도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믿는 사람의 마음에 의혹의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정리야 어떻든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며 열심히 믿는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노력은 절대로 피하여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는 꾸준한 연구와 기도로 바른 지식과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도서12 : 1)

오늘날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행동 표준에 도전하는 음성이 크게 퍼지고 있다. 이 그릇된 가르침은 젊은이의 신앙을 방해하며 유익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에 그처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덕관과 윤리관에 혼선을 빚게 한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은 경전과 의심의 여지가 없는 품성의 소유자가 실제로 보고한 간증을 통하여 명백히 증명할 수 있다. 바울은 말하기를 :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린도후서 13 : 1)

예수는 그의 사도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마태복음 10 : 26, 27)

이 말은 아모스가 한 말과도 같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 : 7)

그리스도의 오심과 생애, 양대륙에서의 사명, 부활하신 후에 양대륙의 사도에게 나타나심 등을 예언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라. 그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신앙을 강하고 불변한 것으로 만들도록 하자.

선지자 이사야는 간증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사 7 : 14) 그는 예수가 "이새의 줄기에서"(사 11 : 1) 나오리라고 예언하였다.

미가는 예언하였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미가 5 : 2)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태복음 1장 18—21절과 누가복음 1장 26—42절에 예언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성취되었다.

예수에 관하여 말하는 가운데 이사야는,

"여호아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눈에 보이는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 : 2—5)

구세주가 전도사업을 마악 시작하려 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며 예수의 성스러운 본성을 증거해 주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막 1 : 11)

그가 베푼 성역에 관하여는 모든 "의혹 제조자"들까지도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으나 그의 상태를 위대한 교사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 대줄 것인가? 그러나 여러 가지 사실과 구세주의 실제성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음에 비추어 이성이 있고 충실한 성도라면 그러한 말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가장 믿을만한 목격자인 그분이 친히 선택하여 가까운 위치에서 보낸 사도들도 구세주의 삶, 성역, 죽음, 부활에 관하여 간증하였다. 이러한 일 또한 고대선지자들과 부활하신 후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 예언한 바이다. 모두가 이같은 사실적인 사건을 간증하고 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치셨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마가복음 13 : 22)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한 후의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의 닫힌 방에서 열 사도에게 또 다른 때에는 열 한 사도에게, 후에는 디베랴 강에서 일곱 사도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꺼번에 오백 형제에게, 감람산에서 열 한 사도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감람산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 : 19)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 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미대륙에 나타나셨다. 니파이삼서의 관계 구절을 보면 무리 가운데 서서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다. 그분은 열 둘을 골라 사도로 삼아 백성에게 전파하며 그들 중에 왕국을 건설하라는 책임을 주셨다. 이들은 주님의 위임을 받은대로 행하여 그분의 존재와 신성에 관하여 명확한 간증을 했던 것이다.

이 말일에도 열렬한 기도에 응답하셔 구세주와 하나님 아버지는 뉴욕 주 성스러운 숲의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 후에 구세주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말틴 해리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1832년 2월 16일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죽은 자에 관한 문제를 기도로 간구하고 있을 때 "주께서 이해의 눈을 만지시었고" (교성 76 : 19)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아들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다. 영광스런 시현을 본 그들은 이렇게 간증하였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교리와 성약 76 : 22, 23)

이 간증은 하나님의 뜻과 사업을 위하여 순교당한 후, 즉 카테지의 땅이 그의 피로 젖어 성스럽게 된 후까지도 요셉 스미스의 영혼을 불태웠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현명하게 말하기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 9 : 16, 17)

그리스도의 생애가 미리 예언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간증을 토대로 너무도 명백하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예언한 것에 따라 살았다. 그는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 가셨고 부활하여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계획에 대한 지식은 영생을 얻는데 꼭 필요하다.

우리는 신의 자녀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본래가 영원한 것이다. 육신 생활 너머에는 미래가 있다. 이것이 사실인 이상 자신이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면 그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들 모두가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의로운 길을 택해야 한다. 구세주는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 : 6)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본체대로 창조하셨

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본체이다. 우리의 첫번째 육신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도 그렇게 창조되었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낳게 마련이다. 이는 태초로부터 그러했다. 말은 어디까지나 말이었고 그의 후세도 마찬가지이다. 동물의 생활이 그러하며 여하한 형태의 생물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신이 조물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믿는다면 좀더 귀하고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겠는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찐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요 5:9) 자신이 창조주 보다 더 많이 알고 현명하다고 마음속으로라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하는 아버지의 가르침, 목적, 심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때 그들은 심판의 날에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며 사실 이렇게 잘못된 입장은 결국 그들을 정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육신을 입고 생활하는 동안 삶에 대한 복음의 계획에 따르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아버지 리하이가 시현으로 본 쇠막대를 굳게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교리에 관하여는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영의 간증은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 자녀에 대한 마음과 뜻을 밝히셨다.

이러한 진리와 간증이 모든 교회 회원의 마음에 굳게 이식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간증은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지식과 더불어 점점 강해 질 것이다. ○

원하시는 곳에 가오리다

알버트 엘 죠벨 이세
연구 편집위원

● 혈기 왕성한 청년 멜빈 제이 발라드는 유타 주 로간의 자기 고향에서 브리감 영 대학교를 방금 졸업했읍니다.

그러나 학문에의 갈구가 충족된 것은 아니였읍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바드 대학원에 들어 가기로 작정하였읍니다. 현재로는 곤란한 입장이어서 2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치기로 계획을 세웠읍니다. 2년째 되던 해에 아주 매력에 넘치는 여성 하나가 학생으로 들어왔읍니다. 후에 둘은 약혼자가 되어 함께 하바드 대학교에 가기로 하였읍니다.

학교를 마치기 2주일 전에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으로부터 비 에이치 로버트 형제와 죠지 디 파이퍼 형제와 함께(후에 주일학교 본부 감독이 되었다.)미국의 큰 도시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라는 부름을 받았읍니다. 자신의 계획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다소의 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저녁이 다 가기 전에 승락의 대답은 교회 대관장에게로 가고 있었읍니다. 발라드 장로는 1896년 7월 17일 자기 학생이었던 마르타 에이 죤스와 결혼한 다음 선교사로 성별되었읍니다. 대학교에서 일년 동안 벌어 모았던 돈을

가지고, 신부를 집에 둔 채 임지로 떠났읍니다.

그곳에서 로버트 부장은 설교하였고, 파이퍼 장로는 노래를 불렀고, 당시 23세의 발라드 장로는 기도하고 가르치고 노래했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버트 부장과 파이퍼 장로는 해임되었고 그리하여 발라드 장로는 여행 선교사로 임명되었읍니다. 이에 낙심한 그는 밤새도록 울었읍니다. 그만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악마의 유혹도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였고 아침이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다스려 임명을 수락하는 편지를 썼읍니다. 자기 생애와 자기 뒤를 따른 수많은 선교사에게 지침이 된 시를 발견한 것도 바로 그때였읍니다. 메리 부라운의 "그의 찬송을 영화롭게"라는 작은 책에 있었읍니다.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높은 산 바다나 전쟁터 아닐지 난 모르나
내 모르는 좁은 길 가라는 주 음성 내게 들릴 때
사랑하는 주여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 대답하리.
산 넘어나 바다나 곧은 길 어느 곳에나 주 원하면
내 가리라 주께 대답하리니 주 뜻대로 되오리다.
예수님의 자비하신 말씀 거기에 있으리
내가 찾아야 할 죄중에 헤매는 자 많으리
오 주여 어둡고 험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사자되어 말씀 전하리니 하라신대로 말하리."
(말일성도 찬송가 164, 286장)

마치 하늘에서 들리는 말씀과도 같았으며 이러한 생각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할 때의 기쁨은 대단하였읍니다. 1898년 12월, 그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읍니다.

저자 메리 부라운에 대하여는 알려진 게 없읍니다. 몇 년 후 발라드 장로는 이 시에 곡을 붙인 찬송가를 스테이크 대회와 교회의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불렀읍니다.

역시 전도 사업을 했고 지테르를 가지고 다니던 보스톤 출신의 캐리 이 라운스펠이 작곡하였읍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하나가 라운스펠에게 "원하시는 곳에 가오리다"의 시를 주었읍니다. 그녀는 곧 자기 악기에 맞추어 곡을 뜯기 시작하였읍니다. 후에 다른 친구 하나가 곡을 정리하여 주었고 다소 세련된 형태로 출판되었읍니다.

발라드 장로는 로간의 실업인, 지역 지도자가 되었으나 언제나 교회에서 일할 시간을 찾고는 하였읍니다. 1902—1903년 겨울에는 단기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바비다호 부와즈 지역의 멀어진 성도를 지부로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읍니다. 설흔 여섯이 되던 1909년 4월에 서북주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읍니다. 이를 받아 들이면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였고 사실 친구 중에는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읍니다. 그는 그것이 설혹 열배 이상의 희생이라 하여도 저버릴 수 없다고 대답하였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을 두고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읍니다. 그곳에서의 봉사는 1919년 사도로 성임받아 십이사도 정원회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읍니다.

1934년 교회 대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발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저는 후에 하바드에 들어 갔읍니다. 35년 후이기는 하지만.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휴가 때였읍니다. 그 웅장한 학교 문턱에 서서 35년 전에 희망을 안고 들어와서 얻었을 성공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읍니다. 학위와 명칭을 감사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읍니다. 저는 한편으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11년을 감독의 보좌 및 평의원으로 14년을 교회 선교사로 15년을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실로 영광에 가득찬 삶의 40년이었읍니다. 그로부터 나온 기쁨, 전능하신 분이 지어주시는 명예와 사랑은 하바드가 주는 학위나 이름으로도 바꾸지 않겠읍니다. 물론 그에 경의를 표하기는 하지만 봉사의 순종을 통하여 오는 기쁨과 행복을 희생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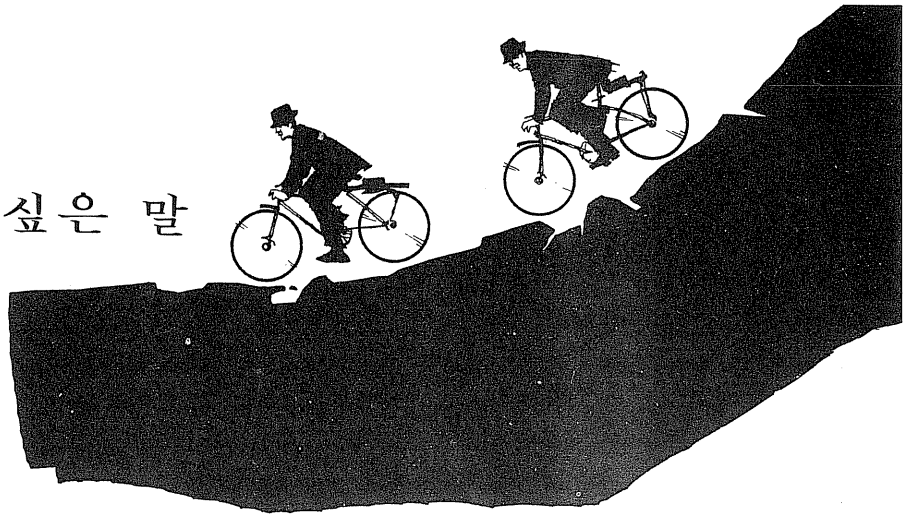
이것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만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나는 가장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 생애의 어려운 일을 감당토록 불러 임명한 사람에게는 영감을 주셔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준비된 자신을 발견하고는 했읍니다." (대회 보고 1934년 10월 117 페이지)

발라도 장로는 1936년 7월 30일 쏠트 레이크 시에서 서거하였읍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을 요약한다면 그가 발견하여 교회에 소개한 찬송가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추수할 곳 너무 많고 일할 시간 짧지마는
십자가 박히신 주 위해 전심하여 일하리
주님의 돌보심 의지하여 날 사랑하심 아오니
성실한 맘으로 주 뜻 행하고 원하신대로 되오리." ○

십년후

선교사에게 주고 싶은 말



베티 멕밀란

● 이번 9월이면 남편 플램과 제가 말일성도 회원이 된지 십년—선교사의 손에 침례를 받고 십년이 됩니다.

일면으로 본다면 그리 평탄치 않은 십년이었고 다른 한 면으로 본다면 참으로 훌륭한 십년이었읍니다.

처음으로 선교사에 대하여 들었을 때 우리는 텍사스 주 휴스턴 남부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에서 였읍니다. 그때만 하여도 모자를 쓰고 자전거에 외투 자락을 날리며 돌아다니는 두 젊은이를 보고는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이른 5월의 어느 노근한 날, 두 젊은이가 현관문을 뚜드렸읍니다. 지금 생각하여도 내 자신이 그때에 한 일, 즉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은 다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 등은 이상하기만 합니다. 젊은이 하나는 두살먹을 제 아이 너석과 함께 재미있게 놀았읍니다. 그만 또의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장난감은 다 가지고 논 것 같았으며 아이도 재미가 있는지 선교사의 무릎에 앉아 놀았읍니다. 한편 다른 젊은이는 내가 역사책에서 한번 읽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 몰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읍니다.

당시에 저는 남편과 함께 형식상으로 참석은 하였지만 아이들이 (12살, 10살, 8살 그리고 2살) 처음에는 이 교회 다음에는 다른 교회의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이 두 젊은이에게 다음 주일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해 보라는 말을 했읍니다. 솔직한 말이지만 남편이 그들의 말을 들을리도 만무하였고 내 자신도 크게 감명을 받지는 못하였읍니다.

한 주일이 지나자 두 젊은이는 어김없이 현관에 나타났읍니다. 놀라웁게도 남편 또한 그들을 안으로 청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여기에서 몰몬 선교사와 사귀기 시작하였읍니다. 두 젊은이는 교회에 관한 좋은 씨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었읍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읍니다. 남편은 담배를 몹시 피우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았읍니다. 맥주를 무척이나 좋아하였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았읍니다. 아침 커피를 즐겼었으나 벼란간 이를 끊었읍니다. 남편은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마음은 몰몬이 되었으나 저는 그렇지 않았읍니다.

이즈음에 두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출을 떠나게 되었읍니다. 대신으로 온 선교사는 키도 크고 검은 머리카락에 테가 검은 안경을 낀 젊은이였읍니다. 어느 날 이 새로 온 친구는 아주 농담 비슷한 이야기로 이렇게 물었읍니다. "커피 한잔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렵니까?" 그때는 웃어 넘기고 말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서 그가 한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읍니다.

이 젊은이와 그의 다음 동반자의 손에 우리들은 1960년 9월에 침례를 받았읍니다.

그들은 우리를 마음 깊은 곳으로 받아들여 주었고 가르쳐 주었읍니다. 처음에는 기게, 다음에는 서있게, 다음에는 손을 잡고 걷게, 물론 시작할 때에는 뒤뚱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지상의 모든 영혼이 갈구하는 궁극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따라 빠른 걸음을 옮기도록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들은 우리의 조용하고 걱정스러운 질문에 답해 주었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꼭 알고 싶어하는 질문에 답해 주었읍니다. 교리 문제로 토론하면서 저녁 시간을 다 보낸 때도 많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바른 답변을 말해 주었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한 영광과 경이에 가득찬 세계를 열어 주었읍니다.

그러나 방향은 서서이 바뀌었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 그들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이들 훌륭한 젊은이들과의 오랜 동안에 걸친 사귀임을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가정은 그들이 편히 쉬며 시원한 쥬스를 마시며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 항구와도 같습니다.

선교사는 우리의 생애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었읍니다. 교회의 회원으로 종교적인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었음은 물론 인생을 건전한 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읍니다.

십년 전에 처음으로 문을 열어준 후로 우리가 사귀어 왔고 사랑했던 선교사가 없었던들 우리의 삶은 메마르고 의미없는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 행복 그리고 위대한 미지의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었읍니다. 그들이 어느 사회, 어느 나라 사람이거나 간에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

베티 멕밀란은 오렌지(텍사스)지부 회원으로 경험많은 여류 신문인이다. 수많은 교회직책을 맡아온 그녀는 4자녀의 어머니이다.

몰몬과의 싸움

로버트 엘 캐논

● 1968년 8월 1일 이전까지만 하여도 "몰몬교"는 한 마디로 괴상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시온이란 유타 주의 자주 독립 주라고 생각하는 앵글로색슨 계의 시골 비정상인들이 모이는 종교 집회려니 짐작하였다.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많은 교파나 종파의 한 종류의 종교 단체로 밖에는 생각치 않았다. 나는 몰몬경을, 교묘히 짜냈거나 아니면 무식한 뉴욕 머슴이 전체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만든 순전한 거짓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나는 몰몬 교리를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 아는 교리와 비교하여 보고는 결국 깡통 뚜드리는 소리의 차이 외에는 없다는 결론을 쉽게 내리고 말았다.

사실 나는 조금씩 진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정말로 나는 요즈음의 사람들이 대결이라고 부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1962년 몰몬 선교사 둘은 부지런히 일했다. 그들이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복음을 설명하려는 노력에 대한 나의 반응은 차가웠을 것이다. 나는 적대 감정을 갖지는 않았다. 그러나 좀더 깊은 뜻으로 말한다면 적대 감정이 내가 이 두 헌신적인 젊은이를 향하여 쌓는 지적인 장벽보다 훨씬 친절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도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았으나 두 주일 후에 우리는 서로 무승부를 선언하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고 4년이 지나도록 나는 선교사를 만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세월을 그대로 보낸 것은 아니었다. 나는 교회안에서 만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일을 하였고 따라서 도저히 대답 못할 질문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신회란 무엇이며 누구를 말하는가? 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일까? 죽음의 뜻이란? 권능의 근원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교회에? 인간에? 사도신경에? 왜 교회는 언제나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요구하는가? 명쾌한 답변으로 궁금증을 풀어줄 책이나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부지기수였다.

나는 다른 교회의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심지어는 그들의 쎄미나리에 등록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은 기대에 빗나갔으며 더구나 이번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가식과 전통에 휩싸여 있었다. 곰곰히 생각하여 볼 때에 이러한 질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그때에 선교사가 뿌려준 진리의 씨앗이 아직도 내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드디어 전환점은 나를 찾아주었고, 나는 전도하는 세계를 떠나기로 작정했다. 따라서 나는 일반 직업을 갖게 되었고 속으로는 다시는 구태의연한 교회 울타리에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던 어느 맑게 갠 오후 의사로 일하고 있던 몰몬 친구가 브리감 영 대학교 후원으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하라고 초대를 하였다. 그날 주요 연사로는 대학 교수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러면서 상당히 자상한 태도로 우리 둘의 마음이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하여 들었다. 그의 말을 듣자 신회에 관한 문제는 아주 쉽고도 명백하게 해결되기 시작하였다. 그날 경건한 몰몬들로 가득찬 강당에서 나는 하늘 아버지께 소개를 드린 셈이다. 나는 그분이 분노, 사랑, 기쁨, 고통과 같은 특성을 자유로이 표현하며 또한 진실하고 품위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는데 놀램을 금치 못하였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진리가 성공했음을 알았다. 교회의 표준 경전을 곧 읽어보고 싶다는 의욕을 느꼈다. 일주일이 채 못되어 나는 다시 두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장시간의 토론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때에 나는 특별히 보호받는다는 감정과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다. 다음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나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던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하여 뚜렷한 두 가지 사실을 배워 받아 들이기까지는 수년이 걸렸다. 하나는 복음이란 방어, 변명 또는 장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오랜 옛날에 기원을 감춘 고대 의식이나 관습으로 과장하거나 신성시할 필요는 없다. 복음은 그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선포된 이후로 그의 위치를 지켜왔던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전혀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총체적이며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

로버트 엘 캐논은 이스트몬트(캘리포오니아) 와드 주일학교 교사 및 제사 정원회 고문으로 회원이 되기 전에는 신교 목사였다.

두 선교사가 겪은

페루의 지진

● 1970년 5월 31일 주일 대지진은 페루를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은 리마에서 북쪽 200마일이며 내륙으로 50마일 지점인 안데스 산 꼭대기였다. 다음 기사는 유타 주 바운티풀 출신의 켄트 투운 장로와 유타 주 루즈벨트 출신의 래드 윌킨슨 장로의 보고 내용이다. 이들은 약 90퍼센트 이상이 파괴된 후아라즈 시에서 일하고 있었다.

"5월 31일 3시 25분까지는 다른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페루의 후아라즈의 안데스 산 꼭대기는 아름답고 따뜻하며 평화스러웠다. 우리는 한 사람과 교회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3시 25분이 되자 밑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페루에서는 경미한 지진이 흔하기 때문에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하여져 우리는 집밖으로 나왔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보다 안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진은 모든 건물이 다 부서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진동이 멎자 우리의 심장도 조금씩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지역을 돌아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있던 지점이 그 도시에서는 제일 안전한 곳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있던 거리는 양쪽 길에 비교적 튼튼한 건물이 늘어서 있었지만 대부분의 거리는 아주 비좁고 벽돌로 만든 건물로 가득차 있었다. 결과를 한마디로 한다면 도시의 거의 모든 건물이 무너졌고 그속에 있던 사람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교회 회원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매몰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여 구조에 힘썼다. 다행스럽게도 몇 사람의 부상자를 제외하고는 회원 50명이 안전하였다. 죽음의 변을 당하지 않은 가족이 거의 없는데서도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기적이었다. 후아라즈의 사망자 집계는 2만명으로 다섯명 중에 두명이 죽은 비율을 나타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우리는 혹시 각자의 세간살이 중에 그래도 쓸 것이 있나 살펴 보았다. 그러나 놀라웁게도 우리의 집은 아직도 서있는 것이 아닌가! 위험하여 대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재빨리 창문으로 기어들어가 되도록 많은 물건을 꺼집어 냈다. 집이 무너지지나 않을까, 게다가 잘못되어 지진이 다시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대개 큰 지진 후에는 작은 것이 따르는 법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무사하였다.

날이 어두었으나 잠을 잘 수가 없었으므로 역시 그대로 서있는 병원에 가서 도와 주기로 하였다. 병원에서는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부상자가 잇대어 들어왔다. 귀 또는 코가 없는 사람, 얼굴이 반쯤 없어진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 그야말로 모든 형태의 부상자가 한데 모여있는 것 같았다. 병실과 복도는 사람으로 넘쳐 흘렀고 그들을 돌보아 줄 의사가 그 시에는 2, 3명 밖에는 없었다. 물도 없었고 약도 없었다. 경험은 전혀 없었으나 우리의 도움은 환영을 받았다. 우리는 병원에서 온밤을 일로 보냈다.

다음 날, 6월 1일, 월요일은 어제나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날이었다. 많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무너진 틈에서 파냈으며 그중에는 아직도 산 채로 구출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음식, 빛도 없고 희박한 공기뿐인 같은 장소에서 여덟 시간을 보낸 소년 하나를 구해냈다. 극장이나 다른 집회 장소에서 매몰된 사람도 많았다.

꼭 2분 20초 동안에 자연이 만들어 낸 일로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시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지라 온통 흐느낌과 곡소리였다.

묻힌 사람도 많았고, 쓸만한 물도 없었고, 비위생적인 생활 조건 때문에 티프스가 만연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그러므로 다음 날도 경험은 없었지만 탁자를 내놓고 티프스 예방주사를 놓아주었다. 그후 며칠 동안은 평화 봉사단으로 파견된 두 여자를 포함하여 여러 친구의 세간을 파주고 정리해 주었다.

지진이 나고 8일이 지난 후 우리는 40시간 걸리는 리마를 향하였다. 이때쯤 되어서는 헬리콥터로 날라온 식량과 보급품은 물론 병원에도 일손이 넉넉하였다. 이제 우리의 도움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 깨끗한 옷과 더운 목욕은 생각만 하여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지진이 일기 5분전에 리마를 떠난 십이사도 정원회의 고든 비이 힝클리 장로는 지진이 난 바로 다음 날에 다시 돌아 오셨다. 그분은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는 1,000명 회원 중에서 사망자로 추정되는 실종자 3명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5만 명의 사망자중 3명을 잃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지진에 관한 보고가 있자 곧 교회에서는 많은 의류, 음식, 의약품을 보내 페루 선교부와 리마 스테이크의 회원과 비회원에게 배부해 주었다.

비극이 그친 시기에 선교사가 보인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했다. "그린고우(북미의 선교사를 이른 말) 밖에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피신을 하는 등 자신만을 생각하는 중에도 그린고우 만은 다른 길,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다. ○

기억의 책? 혹은 망각의 책?

실망에 빠진 계보 탐구자를 위한 방법

로렌스 더블류 랜드

● 헬렌 켈러[1] 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선조 중에 노예가 없었던 왕도 없었고 왕이 없었던 노예도 없다." 가계도를 따라 올라가 보면 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잃은 가지도 찾을 수 있고 아주 훌륭한 우정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조금만 여행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 이같이 적은 것이라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보의 연구는 보다 많은 일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보 연구가에 대하여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계보 탐구자는 자기들이 찾고 있는 선조 만큼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이들 탐구자들은 도서관의 침침한 골방이나 묘지의 묘비나 찾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에드가 알란 포우의 드릴러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다시 살아난 사람도 아니다. 반드시 나이를 먹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 가장 큰 실책은 자기의 업적을 하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 당신 것은 왜 하지 못했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왜 하지 못했던가? 경전이 말하는 바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승영의 교리 이면의 논리도 모르지는 않는다. 어느 와드나 스테이크엘 가든지 계보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본인은 여기에 계보에 흥미를 붙이는 요령 몇 가지를 소개하고저 한다.

첫째, 적은 일부터 시작하라. 만일에 가계도 작성에 혼란을 느낀다면 가까운 친척에 대한 가족 기록서 작성에 착수하는 것이 좋다. 증조부에 관하여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 가시기 전에 그분에 대한 것은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영역내에 속한 일의 세부적인 면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그것 하나만도 일, 이년은 잡아야 하는 수도 있다. 경험과 기록서가 늘어감에 따라 자연적

1. 헬렌 켈러 1880—1968. 미국 작가, 강사, 생후. 19개월 시에 뇌막염으로 시력, 청각을 잃었다.

으로 보다 어렵고 깊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관심이란 흔히 두 분야의 하나에 속하게 마련이다. 한 쪽은 과학적인 면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 사람은 수학에 월등한 면을 보이며 집 주위의 수리에 흥미를 느끼는가 하면 보통 비범하게 뛰어난 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있어서 계보의 논리적인 길이란 통계학적인 방법이다.

다른 쪽은 문학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이 분반을 훌륭히 해내며 이야기를 좋아하며 책을 많이 읽는다. 이들은 전기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지나치게 평면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계속한다면 우리들이 답습하고 있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된다.

통계학적인 방법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가족 기록서나 가계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날자를 알아보고 촌수를 계산해 보는 등 좀더 자세히 알고싶다는 욕구가 커갈 것이다. 일단 시작만 하면 "육촌 당숙간" "시, 읍, 면" "결혼 전 이름" 등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전기적 방법은 제대로 강조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억의 책을 엮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여러 가지 계보에 적합한 자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목격하고는 한다. 집안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사진을 정리한다. 고등학교 때 쓴 시와 대학교 시절에 적어 보았던 주제 등을 찾아 본다. 지난 날에 그처럼 애지중지하던 일기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이처럼 오래 전에 쓴 글을 내놓고 내용을 살펴 본다. 이러한 참고라는 탄환을 가지고 쓰기 시작한다.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여도 자신의 약전, 기억철, 좋아하는 시나 자서전 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이것은 시작하는 것 뿐이다.

계보를 놓고 이야기할 때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 면이 있다. 계보도 재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가정이고 숨은 이야기나 재미 있는 일화, 또는 잊을 수 없는 행사가 없을 수 있겠는가? 본인도 개종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아주 흥미 있는 사건을 많이 발굴해 냈다.

이름 자체에도 재미가 있다. 나는 샘랜드라는 이름으로부터 코넬리아 게투르드 반 더 슬루이라는 이름에 이르기까지 별난 이름도 취급하게 되었다.

친척에 대하여 생각하다 보니 정신 능력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남편의 중간 이름조차 모르는 부인, 결혼 일자도 모르는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면 놀랠 것이나 나의 할머니는 아이들 생일을 순서대로 기억하지 못하셨다. 그러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보면 놀랠 '걸어다니는 역사책'을 갖고 계신 것이다. 또 재미 있는 일 한 가지는 아이들이 그들 부모보다 날자와 장소를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이다.

가족 기록서를 몇 개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 전에는 몰랐던 재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이삭 쉘돈이란 7대조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대가족을 거느리셨으며 매 2년마다 요람을 새로 칠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열 둘을 낳으시고는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모두 이를 버리기로 작정하였으나 열 세번째 아이가 태어났던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자비(Merey)였다.

이처럼 사소한 일도 사실에 입각한 정식 기록서에서 얻을 수 있다. 기억의 책 전기 부분에 적힌 일화는 자신이 아주 귀하게 오랫 동안 보존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되고도 남는다.

조금만 노력하고 힘을 들이면 선조와 친숙하여 진다. 살아계신 친척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할머니의 전기를 쓰기 전까지만 하여도 그분이 이웃집 과일을 훔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하였다.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떻게 서부로 오게 되었는가? 평원을 횡단한 여행, 손마차,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의 기록은 없다. 아버지는 1928년 기차를 타고 서부로 오셨다. 부모, 조부모님이 처음 만난 곳은 어디인가? 그분들의 대답은 자신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모든 것을 다 실패했을 때라도 아직까지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생활하던 중에 영적으로 성취한 면을 자세히 기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생활의 정점, 꿈, 가장 당황했던 때, 생이 가르쳐준 교훈을 감정을 섞어 기록한다. 손자들이 보고 웃을 이야기를 적는다. 매일 쓰는 버릇에 노예가 되라. 물론 계보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나— 편지를 쓰고 좋은 구절을 베끼며 간단한 작곡이나 시작—매일 하도록 한다. 돼지 저금통도 몇 달이 지나면 큰 돈을 쏟아놓는 것처럼 부단히 노력할 때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승영에 필요한 기억의 책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희생

오웬 캐논 벤연

● 얼마 전에 나는 어떤 어린 사람이 주님을 위한 희생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녀는 희생의 의미를 주로 다루었는데 희생 중에서도 물질적인 것의 포기를 강조하는 것 같았다. 하기야 이것도 복음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교회 회원들이 예수가 우리에게 명하신 영적인 희생을 생각하고 있으며 참다운 의미에서 이를 알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이의 참뜻을 알려면 우리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은 그가 치는 양의 첫 새끼를 주님께 희생으로 바치라고 하셨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주의 한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바치느뇨? 아담이 저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 "(모세서 5 : 6, 7)

그리하여 피를 흘려 번제로 바치는 고대의 의식은 시작된 것이다. 이 의식은 아담의 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거쳐 메시야가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위대한 희생을 뜻하기도 한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합당한 희생의 중요성을 묘사해 주고 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창세기 4 : 3—7)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

오렘(유타주)제22와드의 청남상향회 감독인 오웬 캐논 벤연은 브리감 영 대학교 레이맨인 교육 프로그램의 교사로 일하고 있다.

므로 주님이 명하신 것 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훨씬 쉬웠다. 이 기록은 하나님이 합당한 희생의 제물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형태의 희생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이론을 전개하였다.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당한 희생을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보기를 세워 주었다. 우리들은 누구나 어린 이삭이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창 22 : 7)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고뇌가 어떠하였을까를 이해할 수 있는 자식을 가져야 한다. 그는 또한 아브라함이 그 당시 우상에 빠진 제사들이 즐겨 시행하던 인간적인 희생에 혐오를 느꼈다는 사실도 기억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린 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차분한 신앙심과 순종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창세기 22 : 8)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와같은 기꺼운 마음을 보이라고 하시는가? 베냐민 왕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어린 아이같이 되어…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할진대…"(모사이야 3 : 19)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유일하신 참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타게 하여 피의 희생물이 합당함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열상 18 : 21—39) 이 내용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암시가 바로 그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번제를 드려 자신의 충성을 보인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장자이며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므로써 피흘림과 번제는 이룩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후 미대륙의 암흑에서 방황하던 니파이 백성은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양의 첫 새끼를 희생물로 드리는 옛 규례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온 인류를 위한 희생물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번제의 대신으로 "내게 제물을 바치되,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드리라는 명을 받았다.(니삼 9 : 20) 말일에 와서 주님은 이 계명을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셨다.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 네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바치라.…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교성 59 : 8, 12)

만일에 우리가 니파이 민족과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의 중요성에 같은 비중을 둔다면 옛날 성도들이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과연 주님께 합당한 희생을 드리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가인과 같이 그저 편리한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되는가를 연구해 보지 않아 주님이 명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의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가장 높으신 이에게 헌물과 성찬을 드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부르스 아아르 벡콩키 장로는 "성찬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성약"이라고 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아주 높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헌물을 드린다는 말은 주님께 온전한 헌신과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바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몰몬 교리 662페이지, 541—42페이지) 교리와 성약 제59편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희생을 언제, 어디서 드릴 것인가에 관하여 지시하신 말씀이 있다. 물론 우리의 제물이 어느 날에나 다 합당한 것이기는 하나 주의 날에는 특별히 성찬식에 참석하여 성찬을 들라고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고 (성찬을 들므로써)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헌물을 바치므로써) 우리가 성찬 기도를 듣고 이에 자기의 아멘을 덧붙일 때 하나님과의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과 참다운 마음으로 이를 행하면 희생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성찬식의 후반부가 진행되는 동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가득차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성과 자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범법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 등을 새롭게 느끼게 된다. 이렇게 축복받은 지각은 하나님께 잘못되었다는 마음, 상한 마음, 후회감, 겸허하고 겸손한 감정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감정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한 슬픔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이는 금전이나 양의 첫 새끼 등의 세상적인 가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주님은 그의 자녀를 오랫 동안 인도하시는 가운데 희생의 종류를 양이나 황소와 같은 유형의 제물로부터 태도나 마음의 상태라는 무형의 제물로 바꾸신 것 같다. 희생의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인간 내부에까지 파고 드는 것이다. 이러한 은사나 축복은 하나님과 분별의 은사를 입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제물을 드리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놓고 걱정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합당한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그치고 만다. 십일조, 금식 헌물, 기타 물질적인 헌납 또는 좋은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아 나가는데는 상당한 용기와 억제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회개의 슬픈 상태로, 참다운 헌신을 다짐하는 상태로 내 맡기는 것 보다는 훨씬 쉬운 부류에 속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주님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말한다면 대답은 아주 단순하다. 첫째로 경전을 읽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며 그의 계명을 지킬 동기와 의욕을 북돋아 준다.

내 자신이 어렸을 때의 경험을 인용하여 설명을 삼고자 한다. 내가 마악 하나님의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여서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니파이와 같은 분들이 지닌 위대한 힘에 감명을 받았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읽자마치 망각의 장막에 갇혀 있던 영혼에 창문을 열어준 것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관계를 다시 갖기를 그토록 열망하였다. 십대 초에 들어서자 복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겼으나 그럴 때마다 몰몬경을 읽으며 이 책이 참 경전인가를 기도로 물어보고는 하였다. 니파이와 그의 형제에 관한 기록을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성령은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내가 읽은 책이 성스럽게 계시된 책이라고 간증하였다. 그날로부터 하나님께 봉사하겠다는 의욕이 강하게 되었다.

둘째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기름과 결점없는 양을 골랐다. 불결하거나 적당치 않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엄두도 못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하겠다. 우리가 완전을 바라기는 힘들지만 참다운 의미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될 수 있다. 속임이나 가장이 아닌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 신앙, 회개, 침례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생활에서 부단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의 사함을 받을 때 마음은 겸허와 겸손의 상태에 이른다. (모로8 : 24—26 참조.) 이런 상태에서야 우리는 주님께 희생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슬픔과 기쁨—합당치 않은 죄에 대한 슬픔, 주님에 대한 희생과 봉사로 산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부단히 깨어지고는 한다. 이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애통하고 완전히 참회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과 같은 경험은 비밀로 해두어도 좋다. 다른 것은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금식, 간증 모임에서 귀기울여 듣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도 좋다. 그러나 양쪽의 경우 엘리야의 이야기와 흡사한 점이 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합당한 제물임을 증거하여 주었던 것이다. 예수는 니파이 민족에게 약속하셨다.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내게 이르는 자를 불과 성령으로 침례할 것이요," (니삼 9 : 20)

만일에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대로 주의 날에 기도의 집에서 합당한 희생을 드린다면 얼마나 강한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 꼭 일어나야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면 부당한 논리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줄 율법이 있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희생으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영적인 희생을 드리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 생활에 있어서 물질적인 희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영적인 희생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 생의 참다운 목적의 하나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

삶의 도전과 맞서다

존 에이치 반덴버그

● 태초로부터 인간은 상대의 세계에서 살아왔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세기 3 : 17—19)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라는 말을 분석하여 보면 흥미 있다. 우리가 살면서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역설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향상할 수 있는 점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면에는 자동적으로 밑으로 내려 밀려는 점이 생기게 된다.

몰몬경의 리하이는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인간의 생활에 상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 "범사에 저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의로운 것이나 죄악이나, 성스런 것이나 죄악이나, 성스런 것이나 비참한 것이나, 선이나 악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사에 짝이 없다고 한다면 만사가 하나가 되어질 것이라. 만사가 한 몸이 될진대, 생명도 죽음도 없고, 썩을 것이나 썩지 않을 것이 없고,

그러므로 지어진 것이 무용지물이라하여 창조의 목적이 허사라 이르리니…"(니이 2 : 11, 12)

지혜와 통찰력에 바탕을 둔 이들 경전은 삶에 있어서 상대가 왜 필요한가의 목적을 설명하여 주고 있으므로 교회의 청소년 여러분은 소위 완전한 세계의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서 혁명과 폭력을 요구하는 그릇된 음성에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되겠다. 영생으로의 여정에서 우리는 마치 영적, 도덕적인 교실인양 분쟁, 빈곤, 불의, 그리고 실패를 맛보게 마련이다. 모든 인간은 완전, 영원한 화평, 기쁨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거나 불완전, 영원한 슬픔과 고뇌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 자유의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의 발로를 인정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폭력과 죄악과 탐욕의 상태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 때에는 순결을 헤치며 화평을 깨뜨리며 계속적인 필요를 낳으며 영원을 통하여 이룩되는 완전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 상태를 유발한다.

교회 회원으로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맞는 길은 질서 정연한 법의 과정과 이미 조직된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법과 질서의 불순종에 호소하는 예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기"때문이다. (신앙개조 제12조)

충실한 말일성도는 합법적으로 법이 인정하는 계통을 통하여서만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모든 사람이 영원한 화평과 기쁨의 길을 선택할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선동과 폭력을 일삼는 소수 집단은 세상의 모든 악이 발전에서 기인한다고 비난한다. 이 소수 집단은 도저히 완전이라고는 볼 수 없는 파괴와 멸망을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야말로 발전을 이룩하는 유일한 기초라고 호언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그처럼 개탄하고 있는 상태를 개선할 능력이나 계획도 없다. 우리가 처한 사회에서 완전치 못한 것을 보다 나은 것으로 대치할 계획, 능력, 방편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전진이나 향상과는 거리가 먼 후퇴와 퇴보를 벗어나지 못한다. 말일성도의 젊은이는 오늘의 목표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이 삶이 하나의 여행임을 알고 있다. 그들이 갈망하는 화평과 풍요의 목적지를 이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 영원한 기쁨으로의 길은 험준하다. 그러나 여정은 희열로 가득찰 수 있으며 궁극에는 그들이 의로운 상태에서 염원하는 모든 것의 성취를 안게 된다. 그들은 오르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반가이 마지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반대와 도전의 벽은 좌절이 아닌 기회인 것이다. ○

사랑의 모험

● 결국은 일어나고 만 것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는 당치도 않으며, 자기 보다 훨씬 약한 사람에게나 일어나리란 일이 막상 자기에게 닥친 것이다. 그녀는 비몰몬과의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 그녀는 공부나 파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에 가득찬 사람이었다. 그녀는 교회에 홀로 앉아 있거나 아이만 몇 데리고 나오는 외로운 여자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는 하였다. 이런 사람은 모두가 고독한 것 같았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신은 개종하였으나 남편은 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교회에서 성공하였으나 신전 결혼을 결혼의 표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느 편이 더 슬플까? 아니 두 편이 다 살면서 신권의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제니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후세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영향을 미칠 이 무서운 위치에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의 나는 어떤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녀가 직업 학교와 직장을 얻기 위하여 가족을 떠난지 십년이 흘렀다. 선교사가 자기 집 문을 두드린지 2년 반이 지나갔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저 친절을 보이기 위하여 몇 마디 물어 보다가 번쩍이는 영의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여 다시 찾아달라고 부탁하던 때로부터 2년 반이 흘렀던 것이다.

이후로 교회는 그녀의 삶이 되고 말았다. 큰 도시에 홀로 떠있던 그녀는 벼란간 따듯한 마음으로 포근하게 감싸일 수 있었다. 전에는 자유로운 시간도 갖고는 했지만 게으른 몰몬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불안과 방황에서 헤메이던 그녀는 알고 싶은 문제, 이에 따르는 만족할만한 답변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방향도 없는 자기라고 생각하던 그녀는 하나님의 귀여운 자녀라는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기름지고 늘 새로운 경험으로 점철된 것이었으나 동생들은 머리를 저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했다. "어디 좋은 말일성도를 만날 수 있을라구?" 제니도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여 이에 동감을 표시

단편소설

캐서린 케이 에드워드

했다. 꿈의 일부가 된 결혼은 날이 갈수록 정해진 목표에서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언젠가 자기 연민이나 "생은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에 빠진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가 속한 교회의 무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루스 안네는 제니와 흡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인데 그 교회에서는 남자와 교제하지 않는 유일한 아이였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우정이 빠른 속도로 싹트게 되었다.

그날 저녁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연분홍 옷을 입으면서도 어느 특별한 사람과 만난다는 생각으로 설레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나마다 오늘 저녁의 모임도 예나 다름이 없어서 동년배의 여자에게는 감히 춤을 청하지 못하는 남자의 습성 때문에 마지못해 나이 지긋한 남자나 새파란 젊은 애숭이와 춤을 추게 되겠지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중한 태도로 춤의 상대가 되어달라는 청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어떠했던가? 뒤를 돌아다 보니 거기에는 맑고 푸른 눈의 애드 윌커슨이 서있는 게 아닌가!

처음 보자마자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긴 것은 아니다. 그의 첫인상은 그녀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사람과도 같았다. 그런데 애드는? 제니에 대한 첫인상은 그저 단순히 만나면 좋고, 좀더 알기를 원한다는 사람 정도에서 맴돌았던 것이었다.

그날은 온통 불빛, 음악, 웃음의 저녁이었다. 그러나 제니에게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번 금요일 저녁에 만날 약속을 재삼 확인하고는 몸을 떠는 저녁이 되었다.

일은 벌어진 것이다.

강한 몰몬으로 신전 결혼을 그토록 원하던 제니는 자기 교회에서는 훌륭한 회원인 비몰몬과의 데이트를 전에도 간혹 가져 본적은 있었다. 사실 오클라호마에서는 그 나이 또래의 청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일로 눈살을 찌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경우는 달랐다. 아주 달랐던 것이다. 애초부터 지나친 잘못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이는 멋진 사람이 아닌가! 담배를 피우지도, 술을 마시지도, 허풍을 떨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나쁜 사람으로 볼 수도 없었다. 웃을 줄도 알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줄여유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자상했으며, 약간 수

줍음을 타는 것 같기도 하였으나 역시 훌륭한 상대가 되기에 족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이가 몰몬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몰몬 청년이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밤을 보냈다. 그날 저녁 재미 있었던 일, 그이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는 기쁜 마음을 가지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같은 믿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걸리고는 하였다.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잠을 청했다. 한 번 데이트를 가져보고 그것으로 끝낸다는 것이었다.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종교가 허락하는 깨끗한 놀이의 상대자를 구하게 된 것에 감사할 뿐이었다.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자기의 감정쯤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순간 애드가 자기를 놓고 "좋기는 한데 몰몬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지. 데이트나 하다 말 걸."이라고 생각하지나 않을까하는 비열한 상상까지 하였다.

그후 그이와 가깝게 지낸 몇 주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런지. 둘은 같은 것을 좋아하고 싫어했으며 문제삼고 있는 것도 같은 것이 많은가 하면 이상도 비슷하였다. 그들은 많은 일을 같이 해보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둘이 하는 것은 재미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 사이에는 놀라운 것이나 어려운 것이 없었다. 둘은 조각 그림을 맞추는 판처럼 잘 맞았다. 꼭 한 쪽이 없는 판.

꼭 한 조각이 없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조각을 맞추어 그림을 만드는데 그 조각은 중요한 것이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 줄 열쇠가 되는 조각. 제니는 이를 알았다. 그리고 애드도 알았다.

이에 다른 어려움이 제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때로 그녀는 교회 활동이나 공부에 미치기는 하였으나 때로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반가운 인사를 던지는 적도 있으나 남이 어떤 인사를 해오던지 짤막한 대꾸로 시종하는 때도 있었다. 오늘은 그이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 다음 날은 그이 없이는 못살겠다고 울고는 하였다.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갖겠다고 시작하고서도 상대방을 면밀히 검토하다가는 역시 애드에게로 기울어졌다. 그들의 가까운 관계는 두 사람에게 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어느 일요일 성찬식을 마치고 바삐 나오는데 프랫 감독이 앞을 막고는 자기 사무실에서 잠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정말로 감독을 존경했던 그녀는 곧 응했다. 이제는 신권의 인도가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던 차였다. 그녀는 이 순간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시간이 꼭 오리라는 것을 알았고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는 이같은 말을 잠간 하고 나더니 "요즈음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모임이 끝나면 그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만날 수가 없었읍니다. 제가 보기엔 무슨 걱정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물었다.

제니는 깊은 생각에 잠겨 밑을 내려다 보며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 해줄 수 없겠읍니까? 나는 자매를 도와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매도 나의 도움을 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녀는 자기 자신과 삶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여 온 건강한 금발의 그이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감독은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고 질문도 던졌다.

"그렇군요. 문제이긴 한데 듣고 보니 아주 훌륭한 사람 같군요."

"네, 그래요. 아주 좋은 사람이예요. 그이가 추근추근하거나 뭐 싫은 데가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이를 알게 되면 될수록 더 좋아하게 돼요. 그이는, 그이는 '몰몬'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지."

감독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매는 감독이나 선교사나 아니면 그저 몰몬으로서 당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몰몬으로 만든 사람을 만난 적도 많지만 진지한 토론을 벌려 거의 침례에까지 인도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실패한 사람도 보았읍니다. 우리의 축복을 나누고, 그들은 그들대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오. 교회는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더구나 그들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제니는 이에 동의하였다. "아마도 감독께서는 그의 귀에다 큰 소리로 이 교회가 옳은 줄 모르느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왜 모르느냐?는 말을 하시고 싶을 거예요."

감독은 웃음을 터뜨렸고 제니도 그와 함께 웃었다. 수주일 동안에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편안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감독은 차분한 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젊은이와 절교를 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겠읍니다. 좀더 어려운 일을 해보자고 부탁하는 겁니다. 시간 나는대로 자매에게 편한 방법으로 복음 계획의 아름다움을 소개해 달라는 말입니다. 강한 신앙을 가져야 하며 복음의 살아있는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를 사랑하며 가르치기 바라지만 그러나 그대로 교회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

을 때는 성령의 힘을 통하여 그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제니는 자기가 할 일의 중요함에 압도 당했다. 그녀는 교회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 왔다. 그러나 이처럼 무서운 부름은 없었으며 이처럼 큰 의미를 던져준 말도 없었다.

"내가 지금 하는 부탁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자매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 주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함께 할 것이며 원한다면 내 보좌의 기도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힘은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으로 큰 힘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연 신전 결혼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신권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을 매일, 매시간 기억하여 주면 좋겠읍니다. 자매는 지금까지 신권이 없는 가정에서 살아 왔죠. 언제나 그런 식으로 살기를 원하나요? 정말로 복음이 자매의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요?"

제니는 감독의 축복과 기도를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처럼 겸손하게 미래를 생각하여 본 적은 일찌기 없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한 적도 없었다.

그 다음 몇 주일은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순수한 희열과 크나 큰 고통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점차로 교회의 원리와 몰몬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애드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과연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를 자문하여 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일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는 감독을 찾았고 그분은 위안이 될만한 말을 많이 해주셨다. 와드 회원 몇에게는 자기 문제를 이야기해 주게 되었고 그들의 지극한 기도와 관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모든 것이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서 진리를 찾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케 해주었다. 게다가 디딤돌까지 있었으니!

처음으로 함께 교회에 참석하여 보니 그이는 회원 중에서 이미 알고 있거나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모두가 그이에게 우정의 손을 내밀어 주었고 따라서 그이도 말일성도는 기쁨에 넘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처음에는 그이의 가족으로부터 반대를 받았으나 제니의 따듯한 마음과 애드의 진실한 태도는 그들의 견해를 약간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다. 언제나 좋은 자녀였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도 그를 믿어보자는 태도였다.

상향회 파티, 장로와의 정구 시합, 프랫 감독과 그의 가족과의 저녁식사, 스테이크 대회, 주일학교 방문자반 공과 등이 있었다. 애드는 몰몬과 그들의 생활 방식에 익숙하여지면서 기쁨을 느꼈다. 제니는 자기가 얼마나 그이와 인봉되기를 원하는가를 새삼 깨닫는 시기였다.

몇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제니는 자기 방에 홀로 앉아 책을 읽으려 하였으나 생각은 애드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감았다. 요즈음 모든일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이의 마음에는 언제나 의혹이 가득하였고 근래의 토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상태는 조금도 호전될 것 같지가 않았다. 일종의 위기가 도래하여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나는가 걱정이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드려온 기도와 노력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그이가 교회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뭏든 계속 사랑하며 결혼하여 장차 마음을 바꿀 때를 기다려 볼 것인가? 그이가 자기 자신과 교회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여 영원히 떠나가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실이 자기로 하여금 교회에 악감정을 갖게나 하지 않을런지? 아니면 그이가 아름다운 진리를 인정하고 신권을 통하여 둘의 영원한 사랑의 유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벼란간 문을 두드리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애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재빨리 문을 열었다.

"이처럼 방해하게 되어 미안해. 그렇지만 꼭 만나서 이야길 좀 하구 싶어서 왔는데."

그녀는 아무 말도 않으면서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다. 상당한 거리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걸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걱정스런 생각이 스쳐갔다.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었으나 어쩐지 두려웠다.

마침내 그는 공원에 있는 늙은 나무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곳은 둘이 자주 찾던 장소였다. 그녀는 나뭇 가지 위에 걸터 앉았다. 달빛도 밝고 고요한 밤이었다.

"제니, 난 오늘밤 나도 모를 행동을 했어."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다만 속으로 "제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를 외쳤다.

"오늘 저녁 기도를 드렸어. 우습다고 생각하지 마.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제니도 알겠지만 난 전에도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해. 그러나 참다운 기도는 아니었어. 적어도 이번처럼 말이야. 그렇기에 오늘의 경험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어. 제니, 화평 말이야. 전에는 진실하고 완전한 화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장로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라고 했지만 사실 나는 그렇지 못했지. 나의 마음은 의혹과 두려움으로 병들어 있었던 거야. 그렇

지만 오늘 저녁 나는 내가 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어."

그녀는 이 새로운 신앙의 능력을 믿으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이가 자기를 합당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이를 함께 나눌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자 모든 의문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수정과 같이 맑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했어. 교회를 의심하던 이유도 모두 사라졌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였어. 사람들이 내가 제니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나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으며, 말일성도 교회는 이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참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제니, 내가 바라는 건 훌륭한 몰몬이 된다는 것 뿐이야. 어중간하게 하지 않을 작정이야. 좋은 회원, 이웃에게 좋은 형제, 당신에게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하여 내 삶과 꿈을 다 바칠 결심이야. 나는 제니와 함께 영원토록 발전하기를 원해. 난 제니가 필요해. 제니, 난 제니를 사랑해.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벌써 눈물은 보이지 않게 두 뺨을 흘러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심장이 자기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순간과 그이의 아름다운 영혼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의심하고 불평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요. 그이에게 합당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제 강하게 깨달은 저의 약점, 이기심을 용서해 주십시요. 저는 그이를 알면서부터 저를 신전으로 데리고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것을 생각해 왔읍니다. 다른 사람의 보다 큰 필요는 멀리하면서 제 자신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한 소치를 용서해 주십시요."

그녀는 자기에게 그처럼 귀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감싸 안았다. 기쁨의 미소가 떠올라 그이의 웃음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녀는 생각하였다. 사랑의 모험, 그리고 진리의 확신. ○

교회의 대관장

에이치 파커 볼라운트

● 1847년 6월 27일 저녁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은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서 순교당하였다. "그리하여 14년의 짧은 봉사를 마치고 요셉 스미스의 성역의 시기가 끝나자 얼마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 사상 가장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예언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닥칠 무서운 비극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당해야 했다."[1]

예언자의 죽음에 접하자 동부에서 복음 전도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무소속으로 미국 대통령에 입후보한 대관장의 정견을 발표하고 있던 12사도들은 나부로 모여 들기 시작했다. 예언자와 함께 카테지에 있던 윌라드 리챠드와 죤 테일러를 제외한 12사도 정원회 회원은 8월 6일[2] 나부에 도착하였다.

또한 요셉 스미스의 죽음은 대관장단의 제1보좌였던 시드니 리그돈을 돌아오게 했다. 주님의 뜻에 반대하여 펜실베이니아,[3] 피츠버어그에 살고 있던 리그돈은 1844년 8월 3일 토요일 나부에 도착하였다. 그는 다음 날 윌라드 리챠드, 팔리 피프랫, 죠지 에이 스미스와 함께 갖는 모임에 초대되었다.[4]

이 모임에서 시드니 리그돈은 교회의 지도권을 요구하였다.

리그돈 장로는 다음 말을 인용하여 설교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사 55 : 8) 그는 주님이 교회의 상태에 관하여 보여 주신 시현을 이야기하였으며 요셉이 시작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를 이어 교회를 세우도록 임명된 수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자기가 고대 예언자들이 노래하였고 썼으며 기뻐해 마지않은 사람과 동일인이며 자기는 이전 세대의 모든 예언자가 과제로 삼았던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말했다.[5]

8월 4일 모임의 오후 총회에서 나부 스테이크 부장인 윌리암 마크스 장로는 시드니 리그돈의 요청에 따라 "수호자(대관장 및 이사장)를 선출하기 위한" 특별 모임이 있다는 광고를 했다.[6]

8월 7일 수요일 오후 4시 사도, 고등 평의원, 대제사의 모임이 있었다. 브리감 영은 시드니 리그돈에게 그가 받았다는 시현과 계시에 관하여 교회 회원에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리그돈은 자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내가 방문한 목적은 성도를 만나보고 내 자신을 수호자로서의 가부를 물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7월 27일 피츠버어그에서 시현을 보

볼라운트는 인디애나의 퍼두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의 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1960—61년에 서북주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그후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부인 사우나 올슨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볼라운트 형제가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퍼두 와드의 회원이다.

1. 리 디. 웟소 "시대의 인물—브리감 영" 북크레프트사, 유타 주, 쏠트 레이크 시, 1947년, 92페이지.
2. 프레스톤 니블리, 브리감 영—인간과 그의 업적, 데져렛 출판사, 유타 주, 쏠트 레이크 시, 1960년, 52페이지.
3. 교성 124:108, 109 참조.
4. 교회 기록 역사, 제7권 223페이지.
5. 교회 기록 역사, 제7권 224페이지.
6. 교회 기록 역사, 제7권 225페이지.

았읍니다. 이는 공개적인 시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타난 것이지만 "교리와 성약의 책"에 언급된 시현의 연속이었읍니다.

시현은 이 교회는 요셉에게로 세워져야 하며 우리가 받는 축복은 모두 그를 통하여 와야 한다고 밝혔읍니다. 나는 요셉의 대변자로 성임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적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나부에 온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은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요셉의 후계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왕국은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계시도 있어야만 합니다. 순교한 요셉은 아직도 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모든 정원회는 여러분이 워렁과 성임을 받았을 때와 같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나는 요셉의 대변인으로 성별되었으며 그를 위하여 대변하라는 명을 받았읍니다. 우리의 머리가 없어졌다고 하여 교회가 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감정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요셉의 대변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나는 그의 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나를 이 직에 지지하신다 하여도 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이를 알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겠읍니다.

나는 백성의 수호자가 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나의 책임에서 물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했읍니다. 사람들이 나를 받아 들이든 받아 들이지 않든 그들은 스스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7]

시드니 리그돈에 이어 브리감 영은 교회의 지도권에 대하여 말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

"나는 안 리라는 사람이거나 누가 교회를 인도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만 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입니다. 나는 그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알 열쇠와 방편을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우리들 중에서 요셉과 하이람의 생명을 그러했듯이 12사도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임하고 완전한 신권을 주어 우리가 죽더라도 완전한 신권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할 것입니다.

요셉은 돌아 가시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도의 직분에 속한 열쇠와 능력을 우리 머리 위에 부여하셨읍니다. 어떤 개인이나 사람들이라도 이 세상에서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요셉과 12사도 사이에 끼어들 수는 없읍니다.

요셉이 12사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여러번 했읍니다. 나는 기초를 놓았으니 여러분이 그 위에 지어주기 바랍니다. 왕국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읍니다."[8]

브리감 영은 특별한 대회를 다음날 8월 8일 오전 10시에 갖자는 제의로 말 끝을 맺었다. 참석할 사람은 "각 신권 정원회의 회원"이었다.[9]

이 특별 대회에서 시드니 리그돈은 교회의 수호자를 고르자는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했다. 자기는 선택된 "수호자"라는 것이었다.

브리감 영은 만일에 성도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원했다면 순서에 따라 모여야 했을 것이며 따라서 판단에 이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정원회의 모임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말로 오전 총회를 마쳤다. 그는 그날 오후 2시에 정원회 총회와 아울러 회원의 전체 모임을 갖자고 요청했다.[10]

오후 총회에서 브리감 영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려 했을 때 그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었다. 회원들은 체격과 육성이 같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보았던 것이다.

그는 대관장단이 없을 경우에는 12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12사도와 사람들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말일성도 여러분에게 묻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예언자를 택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수호자를 원합니까? 예언자와 축복사가 우리를 떠났는데 여러분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며 안내할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 사

7. 교회 기록 역사, 제7권 229, 230페이지.
8. 교회 기록 역사, 제7권 230페이지.
9. 교회 기록 역사, 제 7권 230페이지.
10. 에드워드 에이치 엔더슨, 브리감 영의 생애, 47페이지.

람이 수호자, 예언자, 대변인인지 알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없음.)

만일에 여러분이 리그돈 부대관장의 인도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이사도 정원회라는 사실입니다.

십이사도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임명되었읍니다.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독립 기구인 십이사도회는 이 세상에 전할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읍니다. 이는 참된 말이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돕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요셉 다음이며 교회의 대관장단으로 일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의 직분을 채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계시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의 머리가 될 수는 없읍니다.

이제 여러분이 시드니 리그돈이나 윌리암 로우나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그들에게는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도 십이사도 정원회와 예언자 요셉과의 사이에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왜냐구요? 요셉은 그들의 대장이었으며 이 말일의 경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왕국의 열쇠를 위임하셨읍니다. 신권과 하나님 사이에 털끝만한 간격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를 임명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십이사도 정원회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들의 직책을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왕국의 열쇠가 그들에게 있으므로 교회의 제반사를 처리하여 나갈 것이며 모든 일을 바르게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11]

브리감 영에 이어, 아마사 엠 라이만, 윌리암 더블류 펠프스, 팔리피 프랫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브리감 영이 한 말을 지지하였다.[12]

이들 형제가 견해를 밝힌 다음 브리감 영은 일어나 "십이사도 정원회를 대관장단으로 지지"[13]를 물었다. 찬성 지지를 물은 다음에 반대 지지를 물었으나 손을 든 사람은 없었다.

그 후 3년간 브리감 영이 회장인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의 관리 평의회로서 지지를 받았다.[14] 1847년 12월 5일 올손 하이드의 집에서 사도들은 회합을 갖고 대관장단의 재조직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올손 하이드가 브리감 영을 교회 대관장으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고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 들였다. 그는 자기의 보좌 지명권을 받았다.[15] 교회의 대회가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27일에 브리감 영, 히버 씨 킴볼, 윌라드 리챠즈로 구성된 대관장단은 성도들의 만장 일치의 지지를 얻었다.[16]

교회의 지도권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모호하게 나타났을 때 요셉 스미스는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였고 그리하여 지도권 이양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그 당시의 상황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리 불투명하지는 않았다.

요셉 스미스는 십이사도를 부르라는 주님의 명을 받았다.[17] 십이사도는 몰몬경의 특별한 세 목격자에 의해서 선택되고 성임되어야 했다. 1835년 2월 14일 오후 대관장단은(요셉 스미스, 시드니 리그돈, 프레드릭 지 윌리암스) 세 목격자를 축복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십이사도를 선택하였다.

요셉 스미스의 마음에는 십이사도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교회에 있어서의 권능과 열쇠에 관한 위치에 대하여는 추호의 의심은 없었다. 그는 그들의 위치에 대하여 많은 사람에게 누차에 걸쳐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요셉은 1835년 3월 28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관계를 분명히 말해 주는 계시를 받았다.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교회 성도에 의해서 선출된 관리 대제사 셋이 교회 대관장단을 구성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서의 십이사도는 "권위와 권능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세 관리 대제사와 동등한" 정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18]

2년 후 1837년 7월 23일 요셉이 받은 계시에서 신권의 열쇠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에게 같이 주어진

11. 교회 기록 역사, 제 7 권 232—235페이지.
12. 교회 기록 역사, 제 7 권 237—239페이지.
13. 죠셉 필딩 스미스, 교회 약사, 389페이지.
14. 리 디 웟소, 브리감 영 시대의 인물, 96페이지.
15. 죠셉 필딩 스미스, 교회 약사, 463페이지.
16. 죠셉 필딩 스미스, 교회 약사, 463페이지.
17. 교리와 성약, 18편
18. 교리와 성약, 107:23—24.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9]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언자 요셉은 이런 말을 하였다. "십이사도 정원회는 대관장단 이외의 어느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읍니다. … 그리고 내가 없으면 십이사도를 관할하는 대관장단도 없는 것입니다."[20]

올손 하이드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관한 예언자 요셉의 감정과 예감을 상기시켰다. 약 60명이 모인 특별한 장소에서 그는(요셉) 이렇게 말했다.

"저의 일은 거의 끝나갑니다. 잠시 물러서 있을 작정입니다. 일에서 좀 쉬려 합니다. 저는 한낮의 더위와 짐을 견디어 냈읍니다. 이제 잠시 물러나 쉬고져 합니다. 제 어깨의 짐을 벗어 십이사도의 어깨에 옮기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깨를 모아 이 왕국을 걸머지기 바랍니다."[21]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연령에 따라 선임 순서가 붙게 되었다. 브리감 영은 토마스 비 마쉬와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22] 보다 후임이었다. 그러나 후에 패튼이 죽임을 당하여 마쉬가 정원회의 선임 사도이며 회장이 되었을 때 그는 교회를 버렸다. 따라서 브리감 영이 선임 사도가 되었다.[23] 잉글랜드 프레스톤에서의 십이사도 정원회 모임에서 브리감 영을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만장 일치로 지지하였다.[24]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죽음과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임 사도, 회장은 교회 대관장으로서의 지지를 회원에게 물어야 한다는 관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관례가 생겼다는 사실은 브리감 영 후로 대관장을 지낸 죤 테일러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는 충분히 정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원회의 선임 사도직책을 맡아 왔고 십이사도 정원회도 완전히 이해하는 바이지만 영 대관장의 서거와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가 대관장단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저는 그들의 회장이었읍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교회의 대관장이 된 것입니다. …"[25]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나타났다.

"교회의 대관장이 돌아 가시거나 또는 그 직책을 그만둘 때에 계시에 좇아 그 후계자를 선택할 책임은 십이사도 정원회에게 있다. 만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선임 사도가 그 직을 계승한다. 그는 교회내에 관련된 모든 권능을 소유하고 있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성임을 받는다."[26]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대관장단이 해체되었을 때 교회를 인도할 책임에 대한 질문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교회의 대관장이 돌아가시는 경우 십이사도 정원회가 십이사도의 회장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관장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몇 개 갖고 있읍니다. 첫째 교회의 대관장이 죽으면 십이사도가 교회를 관리하는 권능 소유자가 되며 아울러 십이사도 회장은 그의 두 보좌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이사도를 관리하는 그의 직책으로 실제로 교회의 대관장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대관장이 서거하는 경우, 교회 대관장을 임명하기 위하여는 십이사도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정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영감에 의하여 하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음 당시의 십이사도와 요셉 스미스 죽음 당시의 십이사도가 따랐던 방법을 이탈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27]

이런 선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시지만 사람들은 누구를 지상의 지도자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의 직분을 채울 수 없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28] 그러나,

"인간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교회의 대관장이 된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읍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지지와는 관계가 없는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읍니다."[29]○

19. 교리와 성약, 112:30—32.
20.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말일성도 예언자가 말하다, 215페이지.
21. 설교집, 제13권 180페이지.
22. 죠셉 필딩 스미스, 교회 약사, 181, 182페이지.
23. 프레스톤 니블리, 브리감 영—인간과 그의 업적, 23페이지.
24. 에스 딜워즈 영 지음, 브리감 영, 북크레프트사, 유타 주, 쏠트 레이크 시, 1964, 257페이지.
25. 죤 테일러, 복음 왕국, 지 호머 더함 편저, 북크레프트사, 1943, 192페이지.
26. 죤 에이 웟소, 신권과 교회 행정, 284페이지.
27.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말일성도 예언자 말씀하다, 214페이지.
28. 교회 기록 역사, 제 7 권 233페이지.
29. 브리감 영 설교집, 죤 에이 웟소 편저, 138페이지.

감사하는 습관

보니 제이 바벨*

● 어제는 내 여름 옷을 만들려고 몇 마의 옷감과 실을 샀읍니다. 너무나 많은 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실과 바늘이 귀해서 매우 소중하던 지난 날의 다른 곳을 회상하였읍니다.

1946년 1월 내가 겨우 생후 3주 밖에 되지 않았던 때의 일입니다. 이때 아버지 프레데릭 더블류 바벨은 특별 임무를 띠고 유럽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와 동반하도록 주님의 예언자의[1] 부름을 받았읍니다. 전쟁의 상처를 입은 곳에 사는 불우한 성도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고 그곳에서 교회 프로그램을 완전히 부흥시키는 일이 그들의 임무였읍니다.

15개월 뒤 돌아오신 아버지의 인생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매우 달라져 있었읍니다. 나의 인생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유럽의 상태에 관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하는 것을 느꼈으며 물질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차 있었읍니다.

"…참석한 중에 여덟 살 또레의 어린이는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겠읍니까? 모두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한때 큰도시였던 독일의 함브르그 시에 사는 500여 성도에게 막 연설을 끝내셨읍니다. 바로 1946년 봄이었읍니다. 수천번의 비행기 폭격으로 함브르그 시는 쑥밭이 되어 있던 때였읍니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계속되는 식량란으로 허약하여 일은 커녕 누더기를 걸치고 외출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과 몰골은 전쟁의 잔혹함을 여실히 반영해 주고 있었읍니다.

크게 폭탄을 맞은 학교 강당 앞으로 약 60명의 어린

* 보니 쥰 바벨은 프레데릭 더블유와 쥰 앤드류 바벨의 딸로서 아버지가 유럽으로 특별 임무를 띠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와 동반하도록 대관장단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생후 3주 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최근 뉴우 잉글랜드 주의 선교 임무를 마쳤다. 브리감 영 대학생임.

1. 죠지 알버트 스미스 대관장

이가 나와서 파괴가 있은지 얼마되지 않은 유럽에 있는 성도들을 첫번 방문하러 오신 사도로부터 사탕, 과자와 맛좋은 드롭프스를 선물로 받았읍니다.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부모에게 돌아가 "엄마, 이게 뭐예요?"라고 질문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읍니다.

원하시면 6살에서 여덟살 난 어린이들이 사탕 과자나 드롭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 몰랐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요. 믿을 수 없다고요? 전쟁의 상처를 입은 독일이 아닌 곳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읍니다.

벤슨 장로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을 모두 나오게 하셨읍니다. 빠짐없이 비누를 한장씩 주셨읍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그들의 손에 이 선물이 쥐어졌을 때 더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읍니다. 이러한 선물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느끼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임신 중에 있거나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을 나오게 하셨는데 36명이 넘을 정도로 많이 나왔읍니다. 벤슨 장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캘리포오니아의 명산인 큰 오랜지를 한개씩 선사하셨읍니다. 장로님은 인근 부레멘 시를 떠나시면서 아침 일찍 회식 장교에게 부탁하여 이것들을 간신히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그들에게 행운이 깃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이 중에 한 어머니는 앞으로 나오면서 벤슨 장로가 나누어 줄 선물 가방을 열 때 그의 가방에 보관되어 있는 실패와 바늘을 점찍어 두었읍니다. 그래서 그녀는 통역을 하시던 아버지 프레드릭 더블류 바벨에게 이야기하여 벤슨 장로에게 자기가 오랜지를 받는 대신에 실패와 바늘을 가질 수 있는지 여쭈어 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곧 그녀의 부탁을 벤슨 장로에게 전했더니 그분은 서슴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을 하시고는 눈물이 매어 말을 못하셨읍니다.

조금 후 그 어머니가 바늘과 실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 가고 있었읍니다. 그녀가 중간쯤 걸어 갔을 때 상호 부조회 회장이 잠시 그녀를 멈추게 하며 이야기하기를 "자매님, 당신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도 바늘과 실을 기꺼이 나누어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자매님과 똑같이 저희들에게도 대단히 필요하니까요."

다음 날 벤슨 장로와 아버지는 독일의 하노버 시에 있는 낡아빠진 학교의 폐허에서 갖는 예고하지 않은 모임에 참석하셨읍니다. 두 분은 날씨가 어두워질 무렵에 도착하셨읍니다. 유리 창문은 종이로 발라 놓고 있었읍니다. 안으로 들어 섰을 때 꽃을 한아름씩 안은 20명의 어린이가 중앙 통로의 양 옆으로 놓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요. 벤슨 장로와 아버지가 단 앞으로 걸어가자 어린이들은 꽃을 뿌려, 그분과 아버지는 처음 아름다운 생화의 융단을 걸어가지 않았겠읍니까. 모임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감회 깊은 마음으로 가득차 있었읍니다.

얼마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읍니다. 바람이 몹시 불어 창가리개를 닫아야 했는데 창문으로 빛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므로 아주 깜깜하게 된 실내에서 모임은 계속되었읍니다. 그런데도 조금하게 서둘러서 합창단은 어두움이 사라질듯한 열정과 정신을 갖고 노래를 불렀읍니다.

현대에 사는 젊은이로서 우리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평, 범죄, 전쟁과 증오에 관한 기사를 보고 있읍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젼은 혼란과 극심함이 거의 우리를 삼켜 버릴듯하게 묘사한 보도와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사랑, 친절, 고마움과 감사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감자의 껍질을 버려 버릴 때 옛날을 회상하곤 합니다.

벤슨 장로와 아버지께서 당시 프랑스의 점령지였던 독일 자아르브뤼켄에 있는 교회 회원을 만났을 때였읍니다. 성도들은 성찬을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주일 동안 한두조각의 빵을 구하려고 무척 애를 썼읍니다. 그 당시 빵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성도들은 결국 빵대신 감자 껍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감자가 아닌 껍질을 두 말 한 홉에 약 3만원을 주고 사야했읍니다. 벤슨 장로는 주님께서는 확실히 그들이 성찬을 바치는 것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후에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읍니다.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쉬우나, 우리가 절실히 개발할 필요를 느끼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가끔 작은 것을 간과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자주 상기시켜 주셨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 지리니 참으로 백배 이상 더해지리라."(교리와 성약 78 : 19) ○

봉사에의 부름

선교부장 제 2 보좌 **윌리암 오 휘티커**

● 어제 오후 사무실의 전화 벨이 울렸읍니다. 슬로버 선교부장님이었는데 2월호 성도의 벗에 들어갈 기사를 금주 중에 써줄 수 없겠느냐는 내용이었읍니다. 잠시 달력에 눈을 돌려 보니 월요일 저녁에는 안 사람과 같이 사친회에, 화요일 저녁에는 사업관계의 저녁 식사에, 수요일 저녁에는 안 사람과 다른 사업관계의 저녁 식사에 참석해야 했읍니다.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아무런 예정이 없었으나 이 중 하루는 가정의 밤으로, 또 하루는 주말로 닥친 지방부장단 쎄미나 준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읍니다. 일주일의 계획표를 재빨리 조사한 저는 이번 주일에는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사를 쓰기 곤란하겠다고 대답했읍니다. 선교부장님은 여하간에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읍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는 차 속에서 오늘 있었던 그리 대수롭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읍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나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더없이 바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았읍니다. 우리들은 학교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때가 되면 젊은이들은 졸업과 대학 입시를 걱정합니다. 부모들은 가족의 식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꼭 매인 몸이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이 남아 돌아간다는 말은 할 수 없읍니다. 우리의 종교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위와같은 활동 이외에도 지역 사회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일을 수행하여 주님께 봉사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읍니다.

그러자 저의 생각은 오끼나와에서 사귄 폴리네시아 친구에게로 돌아 갔읍니다. 몰몬이 사용하는 말에는 "아니오"라는 단어가 없다고 이야기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권능을 소유한 사람이 부탁하는 교회 일에 대한 우리의 답은 언제나 "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형제의 철학이었읍니다.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바친다 하여도 우리가 끊임없이 받는 주님의 축복을 다 갚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형제의 철학은 경전의 진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이끄는 삶을 살았으며 참다운 말일성도의 참 표본이었읍니다.

이러한 생각에 미치자 저는 회개하여 슬로버 부장님이 부탁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읍니다. 시간을 잘 조정하면 기사를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만일에 제가 봉사에의 부름을 그러한 식으로 정리하고만 있었다면 이같은 일쯤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느꼈읍니다. 저는 이 기사를 쓸 수가 있었읍니다.

기사가 걸작에 속하는 위대한 글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하여 얻은 중요한 점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내에서 봉사하는 부름에는 우러나오는 "예"로 대답하여야 하며, 자신의 대답을 뒷바침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참다운 종일진대 그분은 도움과 축복을 필요로 할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끗하고도 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에 대답하고 시간과 재능,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 자신을 바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

성도의 벗
1971년 2월 1일발행(매월 1회 1일발행)
1967년 10월 4일 공보부등록 라——932
값 50원

결혼 생활의 예절

리차드 엘 이반스

● "서로 위안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허다한 사람 중에서 선택한 두 사람은 스스로 상대방의 나약함이나 불안전에 관하여서는 건전한 유우머를 교환하며 정다웁고 서로 분별하고 용서하며 참고 즐거운 마음을 나누는 행동의 유대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리차드 스티리(1672—1729년, 영국 수필가 및 극작가)가 말한지 벌써 1세기 반이 지났읍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는 좋은 정리가 되는 말이며 앞으로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는 훌륭한 시작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결혼이란 피상적인 고려만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며 또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우기 속히 결정을 내릴 일도 아니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내하는 성품과 의무에 대한 성실을 요합니다. 사실에 부딪혀 보고 문제를 해결하며 일하고 경제력을 기르며 정당한 포부를 가지며 가정을 가꾸고 자녀를 가르치며 인생과 사람과 실망에 대해서 적응해야 하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결혼이란 날이 갈수록 마음의 기지와 정신의 탄력과 절대적인 정직을 요구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참으로 결혼 생활에는 예의와 친절과 정중함의 예절이 반드시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할 때엔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나보고 헤어질 수도 있으며 이따금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결혼이란 가장 오래도록 지속하는 생의 관계입니다. 결혼하는 두 사람은 공동의 확신, 목적, 관심과 이상을 가지고 협력하여 자녀를 교육시키며, 또한 양 부모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녀를 인도하므로써 때로는 혼란스럽고 신앙을 잃게 하며 가족을 분열시키는 비극을 피해야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가족은 영원한 것이라는 깊은 뜻을 기억한다면 결혼 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가정을 두고 이보다 더 나은 곳을 생각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보다 더 친절하고 정중하고 정직하고 존경받도록 해야 할 곳은 아무데도 없읍니다. 가정을 떠나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가정에서보다 더욱 순결하고 많은 배려를 하며 우리의 좋은 면을 보여야 할 곳은 없읍니다. ○

진리의 말씀은 유명한 볼몬 테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읍니다.